

광주시 '지속가능경영' 기업 동참 잇따라

내일 지속발전협·30개 기업 협약

기온 1도 낮추기 등 과제 추진

실천운동 시범학교 3곳 운영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에 지역 기업들의 참여가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는 UN이 2015년 9월 채택·발표한 17개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위기 등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념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올해 3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거버넌스(협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광

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목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지역 대표기업 3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병완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광주지역 30개 기업대표가 광주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광주지속가능발전 이행 원년을 맞아 환경관련 75개 기관·단체와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해 5차 지방의제인 ▲지속가능 광주만들기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교육사업 등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확산을 위해 시범학교를 지정(광주교대부설 초, 광덕중, 서강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사연구회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측면에서 광주시가 100년 광주로 발돋움 하는데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금호홀딩스 김현철 대표는 "광주지속가능경영으로 기업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광주지속가능발전 이행 원년을 맞아 환경관련 75개 기관·단체와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해 5차 지방의제인 ▲지속가능 광주만들기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교육사업 등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확산을 위해 시범학교를 지정(광주교대부설 초, 광덕중, 서강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사연구회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4월까지 자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실천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가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결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속가능경영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시책과 연계한 실천과제와 기업여건에 맞는 경영시책을 적극 발굴하게 된다.

특히 ▲광주온도 1℃ 낮추기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1사1산1하천 가꾸기 ▲물 순환 선도시 등 참여과제와 5차 지방의제와 관련된 자체 실천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문병재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발 빠르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12일부터 의무 설치

오는 12일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주방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한다.

식용유의 온도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인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이다 보니 불꽃을 잠시 제거해도 곧 불길에 다시 일어나며 물을 뿌리게 되면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번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데 유용하다.

광주지역에서 주방 내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는 2014년 147건, 2015년 213건, 2016년 137건 등으로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장현(맨 왼쪽) 광주시장이 지난 5일 '행복한 목수 봉사단'과 함께 창틀 교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행복한 목수들' 을 40가구 희망 짓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만 같습니다. 지난 2014년 꾸려진 '행복한 목수 봉사단'이 가계가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취약계층 주택 126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40가구를 목표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행복한 목수 봉사단'에는 대한전목조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원업체와 북구 흥중동 건축자재 특화의 거리 상인회, 광주재능기부센터 자원봉사자,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주택 전문가

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자원봉사 등이 힘을 보태고 있다.

'행복한 목수 봉사단'은 민선 6기 공약사업인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모태가 됐다. 집수리 자재비 등은 시비로 지원하고 '행복한 목수 봉사단'의 재능기부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행복한 목수 봉사단'은 지난 5일 뜻깊은 봉사활동을 했다. 회원 40여명이 보훈의 달을 맞아 북구 유동에 있는 6·25참전

유공자 이모씨의 낡은 주택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이들은 낡은 창호를 교체하고 도배, 장판, 외벽 페인트칠, 싱크대 교체 공사 등으로 집을 깨끗이 새단장했다. 이 씨는 "이번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창호교체·도배공사에 참여해 맘을 뿔었다. 윤 시장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그래도 '행복한 목수 봉사단'처럼 따뜻한 마음이 있어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은 '2017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되는 것으로 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이에 따라 4건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축탁제도를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4월까지 자동

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57%로 광주시와 자치구 재정지출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활용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 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다양해진 '빛고을 투어' 고된 군생활 달란다

광주시는 광주지역에서 복무하는 타 지역 출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빛고을투어의 올해 일정과 코스를 확대했다.

광주시는 '타 지역 장병 빛고을투어'가 광주정신을 대외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회 중 3회를 1박2일로 늘리고, 투어코스도 순천·여수·전주 등 전남·북까지로 확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총 2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1회 투어에는 38명이 참가해 국립 5·18민주묘지~순천만국제정원 및 습지~여수 북한반잠수정전시관~여수 산업단지~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둘러봤다.

특히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유가족을 직접 위로하는 등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코스가 더욱 의미있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빛고을투어 참가자는 육군 제31보병사단, 공군 제1전투비행단, 육군보병학교, 육군공병학교, 육군포병학교에서 복무중인 타 지역 출신 장병으로 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빛고을투어를 참여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증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조선대병원, 폐렴 치료 평가 1등급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에 선정됐다.

폐렴은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심평원에서는 정확한 진료 현황 파악 및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전체평균 및 삼급종합병원 평균점수보다 높게 1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상홍 조선대 병원장은 "전국 평균 및 삼급종합병원 평균보다 높게 1등급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적인 치료를 바탕으로 암, 심·뇌혈관 질환 뿐만 아니라 폐렴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완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건설기계 불법 영업 예방 스티커 배포

광주시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자가용 등록 건설기계의 불법 대여·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홍보물에는 관련 규정 등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자 등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영업 관련 ▲자가용 불법 영업대상 ▲건설기계 표지판 구분방법 ▲불법행위 적발 시 벌칙, 행정처분 등을 담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K호텔

**깨끗하게 새단장 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박문의 H. 010-3605-5000
061-783-8090

대형모텔 매매·동업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2평 건물 718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10일 오픈예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동업 - 협의 (경험자우대)
- 용자 8억 포함, 법인체 인수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